		보 도 자 료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광역시
배포일자		2021년 4월 6일(화) 총 9매		
담당 부서	건축계획과	담당자	• 건축행정팀장 방용섭 ☎440-4721 • 담당자 윤건웅 ☎440-4724	
	에너지정책과		• 에너지신사업팀장 김일웅 ☎440-4301 • 담당자 이병일 ☎440-4302	
사 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특별시 인천, 탄소제로도시 향해 달린다

-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박차 -
- 건축물 온실가스 2030년 32.6% 감축 목표로 그린리모델링 등 시행 -
- 친환경 자체 매립지·도시숲 등 인천형 그린뉴딜 추진, 환경특별시 도약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친환경 미래에너지인 수소경제 육성에 본격 나섰으며, 그린건축물·클린팩토리를 확산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1월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와 전세계의 변화와 행동에 합류했다.

※ 탄소중립(Net-Zero)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더했을 때 0이 되는 상태. 화석 연료 사용, 에너지 생산, 운송 등의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흡수·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것. 국제사회 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

☐ 수소산업 선도도시 선언, 친환경에너지 전환 박차

시는 화석 연료 중심의 사회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기업들과 손잡고 ‘수소산업 선도도시’를 선언했다.

지난 3월 2일 인천시와 서구, 현대자동차(주), SK E&S는 ‘수소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소경제 컨트롤타워인 수소경제위원회(정세균 국무총리, 위원장)도 함께했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향후 바이오·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자동차 전환과 인프라 구축 등 재정·행정적 지원에 노력하기로 했다. 서구는 수소산업 기반의 구축과 환경 개선, 안전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 현대차는 수소경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수소차 산업 육성과 수소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고, 바이오·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기반구축 실증 사업 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SK E&S는 인천시 바이오·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에 참여하는 동시에 이와 연계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다.
- 시는 향후 부생수소와 함께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오는 바이오 수소를 활용하는 ‘바이오·부생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 대기업이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에 합류한 만큼 일자리 창출, 관련 산업의 발전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남춘 시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선 수소 에너지 보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최적의 수소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인천의 수소생산 생태계를 활성화 하겠다. 수소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천시 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건축물 온실가스 2030년까지 32.6% 감축 추진

시는 또 2030년까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32.6%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녹색건축은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을 적용해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 및 시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계획된 건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자원절약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연료소비 감소로 인한 공기질 개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를 볼 수 있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건축물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기준 산업 55.3% 다음으로 건축물 24.6%로 전체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인 70.4백만 TCO₂eq 중 건축물은 17.6백만TCO₂eq을 차지해 약 25%로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녹색건축물 조성은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주요 사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특히 녹색건축은 우리의 일상과 매우 밀접하기에 제일 현실적인 방안이자 가장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그린뉴딜의 핵심 과제다.

시에서 수립한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세부실행계획”은 ▲제도적 기반 마련 ▲인천형 녹색건축물 조성 ▲녹색환경 개선 ▲녹색건축 문화 확산 ▲대시민 홍보의 5대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 우선 연 내에 ‘인천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해 신축, 개축 등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 등 기준을 적용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둘째, 인천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빗물 재활용 및 수소연료 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제로에너지건축 구현과 노후 건축물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인천형 녹색건축물’을 조성한다. 금년부터 실현가능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하반기 예산확보 후 사업 추진 할 계획이다.
- 셋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과 ‘우리집(인천시 영구임대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물로 건립 및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녹색환경을 조성한다.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등 그린리모델링 22개소를 사업 착수했으며 2024년까지 600개소(호)에 대한 사업 완료가 목표다.
- 넷째, 인천건축문화제를(10월 예정) 통해 에너지 체험부스 제공, 녹색건축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인 녹색건축 미래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녹색건축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녹색건축물 안내책자 제작, 에너지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녹색교육 실시와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녹색건축 대중화 및 인식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 인천형 그린뉴딜 추진, 환경특별시로 도약

시는 자원순환정책 대전환과 탄소배출 감축을 두 축으로 하는 ‘인천형 그린뉴딜’을 본격 추진, 환경문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함께 추진되는 친환경 자체 매립지(인천

에코랜드) 조성,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도시숲, 친환경차 보급 등이 대표 사업이다.

- 인천에는 올해 축구장 13개 면적의 도시숲이 조성된다. 제3경인고속도로변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실내 스마트 정원 등 45개소에 10만5천㎡의 생활 속 도시숲이 만들어진다.
-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 2만2,000대, 수소연료전지차 2,500대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도 대폭 확대한다. 2025년까지 친환경차 약 6만대(전기차 5만·수소차 1만대), 녹색건축물 3천개가 인천형 그린뉴딜의 핵심목표 중 하나다.
- 산업단지에 첨단 녹색기술을 입혀 친환경으로 개조한 ‘클린 팩토리’도 2020년 15개에서 2025년 90개까지 확대한다.
-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최근 박남춘 시장이 직접 옹진군 영흥도를 인천 에코랜드 최종 후보지로 확정 발표하며 “영흥을 환경특별시 인천의 중심이자 친환경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특별한 섬으로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다.
- 인천 에코랜드는 현재의 직매립 방식이 아닌 친환경 방식으로 조성돼 주변 지역에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자원순환센터에서 발생된 소각재를 재활용 후 남은 잔재물 및 기타 불연성 잔재물만 매립해 1일 반입량이 20톤 트럭 약 8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붙임> 인천시 친환경 정책 관련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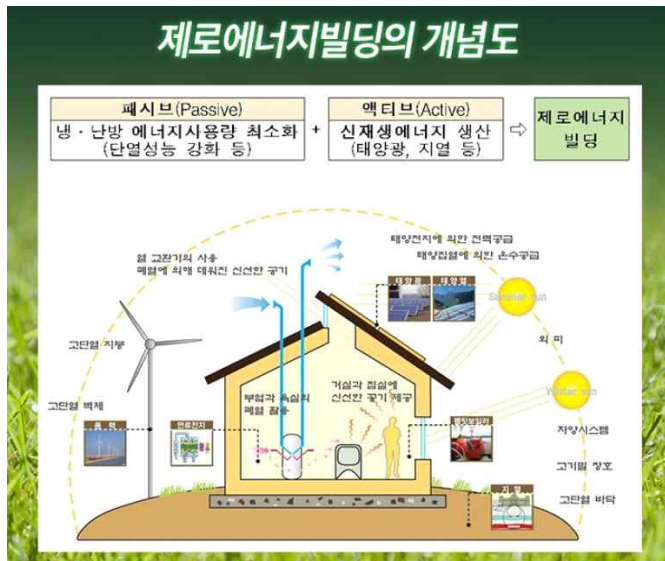
지난 3월 2일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에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와 '인천시 수소산업기반 구축 MOU 체결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태원 SK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추형욱 SK E&S 사장.



지난 3월 2일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에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와 '인천시 수소산업기반 구축 MOU 체결식'이 열렸다. SK수소액화플랜트 사업예정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중양대학교에서 노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수도권 관계 기관 플랫폼 발대식이 진행됐다.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성균관대학교, 중양대학교 등이 참석했다.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도



2018년 10월 18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시승하고 있다.



2018년 10월 18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시승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10월 13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0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인천형뉴딜 종합발표를 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10월 13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0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인천형뉴딜 종합발표를 하고 있다.